

No.26호 2024. 03.



※ 식에 오르기 전 센터의 발을 함자게 일구는 현지 지역자들
을 위해 땀겨칠 열매들을 기대해 받는다

김희균 · 최경인 · 지명 · 명재 선교사의

STORY

바누아투 선교 이야기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일 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이지만 그 어느 해 보다는 더욱 덥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바깥의 온도는 45도를 넘어섰고, 습도는 매일 90%를 웃돌았습니다. 집안 온도계는 매일 32~33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바람은 잠잠하기만 합니다. 선풍기가 돌아가지만 더운 바람

이 불어올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집 안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지붕에 환풍기를 달아보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땀약발을 온 몸으로 받아가며 강판 지붕을 잘라내고 공장에서도 볼 법한 환풍기 하나를 달았습니다. 옷은 땀에 흥건히 젖었고 몸에서는 땀이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 보았지만, 집안의 온도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버티기 모드로 견뎌보기로 합니다. 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 무더운 날에 불어오는 시원한 소식들

2024년 새해, 1월 중순에 접어들며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 각자의 섬으로 돌아간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섬들마다 통신이 여의치 않아 여러 번 시도 하였지만, 연락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두에게 연결되기까지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현지 사역자들이 여럿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서도 오지 않는 일이 흔하기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컨퍼런스를 시작하기 한 주 전, 이곳 저곳 섬들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매해 첫 컨퍼런스는 늘 쉽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섬들에서 오기 때문에 배편이나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을뿐더러 오는 데에만 하루 혹은 이틀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이 집에 돌아가 쉬는 동안 마음이 느슨해진 까닭에 첫 컨퍼런스는 늘 제 시간에 시작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이 일찍이 도착했고, 컨퍼런스 시작 전에 대부분이 센터에 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사역자들도 7명이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올해 첫 컨퍼런스는 늦춰지는 일 없이 제 때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5:16)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신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새해 첫 컨퍼런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올 해 첫 컨퍼런스는 “Good News” 복음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한 주간 레위기를 강해하며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위기 강해를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놓고 많이 고심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기는 하지만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얕을뿐더러 레위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기는커녕 읽어본 적도 없는 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복음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느슨해졌던 마음들이 성령의 불길로 다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 다시 산속 부시 마을을 향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 연이어 들어오는 시원한 소식들

작년 한 해, 현지 사역자들이 부족하여 사역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스텝들과 함께 매일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올 한해 충분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셨고 산속 마을들에 사역자들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얼마 되지 않아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르지날”이라는 마을은 바하이라는 종교가 강한 마을입니다. 오래전에 사역자들을 보냈었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발길이 끊겼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학교 사역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사역자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톤힐”이라는 지역은 산에서 내려온 부족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한 추장으로부터 이곳에도 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보투마스”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아랫 마을의 한 사람을 우연치않게 태우고 갔는데 예배를 마친 후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마을에서도 예배를 드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힘겨웠던 지난 한해를 발판삼아 올 한해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문들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진해 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시 마을로 돌아지기 전 마음을 모아다함께 기도합니다.

• 갑작스런 출국

일들이 힘차게 진행되어가는 중에 우려하던 일이 결국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자”의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일찍이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의 일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어 결국 비자 만료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으로부터 바누아투에서 출국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침 함께 사역하시는 선임 선교사님이 가까운 뉴질랜드에 머물고 계셨던 터라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 수도 빌라에 있는 이민국을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출국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조만간 비자가 나올거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출국했습니다. 2시간 반 비행 후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선선하면서도 습하지 않은 바람이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잘 갖춰진 편의시설들을 보며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저희 가족이 머물 선교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두 아이들은 집 안에 꽂혀있는 많은 책들을 보며 즐거워했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감격했습니다. 무엇보다 맘이 나지 않아 웃을 이들 동안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온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저희 가족은 귀한 만남과 교제를 나누며 어느덧 3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갈 거란 예상과는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도 순간 순간 불쑥 밀고 나오는 조바심이 마음을 편치 않게 합니다. 비자가 속히 나와서 선교지로 복귀하도록, 두고 온 선교지와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무더운 여름날, 지붕 위에 올라가 밝은 웃음으로 더위를 떨쳐봅니다. 밝게 웃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PRAYER ●

1. 비자가 속히 나와 바누아투로 하루빨리 돌아가도록, 뉴질랜드에 머무는 동안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가족이 더욱 사랑안에 하나되며 영육간에 재충전과 준비의 시간이 되도록,
2. 센터와 부시 마을에서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힘있게 사역하도록, 또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역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3.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산토부시지역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며, 복음에서 소외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4. 라베 교회, 셀레 학교, 나솔레솔레 기숙사의 건축이 안전사고나 멈춤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5. 부부가 지지치 않고 균형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두 아이들(지명, 명재)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주 안에서 자라가며 홀스쿨링을 즐겁게 감당해 가도록,



※ 2022년 12월 24일 현지 사역자들과 이들을 후원하시는 새 노들기대원입니다.



소속단체 (GMP(한국개척선교회) | 파송교회 부산 호산나교회
김희균 선교사 ✉ kimhgdavid@gmail.com ☎ kimheegeaun
최경인 선교사 ✉ worship1225@hanmail.net ☎ worship1225
전용계좌 KEB 하나은행 303-04-00004-431 GMP김희균